

# 이거 읽어 한번 봐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대학생을 위한  
2022 추천 도서 & 추천 영화



p.5

---

**추천도서 : 오늘의 세계** 사회 현상을 현상이 아닌 원리와 구조로 이해하도록 돕는 책

p.15

---

**추천영화** 책이 너무 무거울 때는 잠시 쉬어가기. 즐거움, 내용을 함께 제공하는 영화

p.23

---

**추천도서 : 마르크스처럼 생각하기** 마르크스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길잡이

전국학생행진

# <이거 한 번 읽어봐>, 이렇게 활용하세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해주고, 감수성을 풍부하게 해주며, 나를 둘러싼 사회로 시야를 확장해주는 ‘독서’야말로 현대 사회의 교양인으로서 필수 덕목이라고 하죠.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서 독서가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이야말로 이 사회를 둘러싼 담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인간관계와 철학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를 비롯한 각종 ‘용기 시리즈’가 유행처럼 출판되었습니다. 5년 뒤인 2020년대 초,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 논쟁이 폭발했고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공정성 논쟁의 선두에 있습니다. 이렇듯 독서는 단순히 ‘뚝뚝해지는 것’을 넘어 현재 사회에서 어떤 논쟁이 오가는지, 나는 시민으로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전국학생행진이 이 소책자를 발간한 이유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수많은 사회문제가 존재합니다. 독서를 하면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쟁과 토론지점을 알 수 있고, 사회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입식 교육을 거친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스스로 책의 쟁점을 이해하면서 읽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소책자는 독서로 나의 삶과 사회를 더욱 이해하고 싶은 대학생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추천도서 : 오늘의 세계>에서는 국제정치, 경제, 환경, 노동, 페미니즘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한 책과 활용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소책자와 함께라면 딱딱해 보이는 사회과학책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추천 도서 : 마르크스처럼 생각하기>에서는 전국학생행진이 지향하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궁금한 대학생들을 위한 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자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마르크스의 이론과 운동을 알고 싶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추천 도서를 읽기 전에 가벼운 생각할 거리를 얻고 싶은 대학생들을 위한 <추천 영화> 코너도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 번 읽어봐>가 여러분에게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02 <이거 한 번 읽어봐>, 이렇게 활용하세요!

03 한 눈에 보기

04 전국학생행진 소개

05 추천도서 : 오늘의 세계

[경제]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페미니즘] 지금 여기 페미니즘

[국제정치]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신냉전 한일전, 리얼노스코리아

[노동] 모두를 위한 노동교과서, 한국 노동시장의 해부

[사회] 세습중산층사회

[환경] 콜잇 : 회의적 환경주의자의 지구 온난화 충격 보고

15 추천영화

청년 마르크스, 돈록업

또 하나의 약속, 미안해요, 리키

빅쇼트, 국가부도의 날

원헌 : 전쟁의 문턱에서, 7월 4일생, 조조래빗

넷플릭스 익스플레인 시리즈

23 추천도서 : 마르크스처럼 생각하기

[마르크스는 누구인가]

사랑과 자본,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운동-공산주의 선언

[마르크스처럼 생각하기]

현대의 경계에서, 자본'의 이해: 마르크스의 경제이론, 마르크스의 '자본', 화폐·금융과

전쟁의 세계사, 2007-09년 금융위기

[마르크스를 따른 사람들]

The Left 1848~2000 미완의 기획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이념과 운동

[마르크스주의 확장하기]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세미나,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 전국학생행진 소개

전국학생행진은 마르크스주의를 바탕으로  
노동권, 여성권, 평화권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하는 대학생단체입니다.

전국학생행진은 학교 밖의 지식, 사회의 변화를 위한 지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판적 지식을 향한 한 걸음, 행진> 강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유포합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병력 철수를  
요구하는 평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강연 참가를 희망하거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에 함께하고 싶은  
대학생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행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인스타그램 [stu\\_link](#)

이메일 [stulink2017@gmail.com](mailto:stulink2017@gmail.com)

홈페이지 <https://stulink.campaignus.me/>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몇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관심있는 분야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추천도서

오늘의 세계

... the young lady's  
... with her usual  
... her habitual  
... with, for him, the  
... A laconic is also  
... as the famous report  
... "Saw sub. sank same."

##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자본론으로 21세기 경제를 해설하다

저자: 한지원

출판사 : 한빛비즈 | 발행일 : 2021.01.25



### 자본주의가 멈추고 있다?

우리는 명실상부 자본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500년을 견고하게 이어져 온 체제이지만, 근래 들어 그 지속가능성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대되는 불평등과 빈부격차, 대규모 실업난, 주기가 짧아지는 경제 위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는 마르크스의 ‘자본’에 담긴 경제 이론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최근 특성을 분석한 후, 그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2022 경제 상황을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을지, 자본주의 위기의 해결책과 대안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 여러분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를 통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보는 것 어떨신가요?

- 난이도 ★★★★★(약간 어려움)
- 흥미 ★★★★★(현실과 연결되고 재밌음)

TIP 이 책은 ‘자본’의 현재화를 시도합니다. 안 그래도 복잡하고 어려운 ‘자본’은 150년 전의 세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경제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죠. 이 책은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다만, 경제학 기본이나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 자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지 않는 이상 이 책을 읽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사회진보연대’ 채널에서 저자가 강연 영상을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금 여기 페미니즘

함께 공부하는 여성권 강의

저자: 이유미

출판사 : 사회운동 | 발행일 : 2015.03.16

### 오늘날 페미니즘처럼 논쟁적인 이슈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여성이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여성만이 겪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페미니즘을 두고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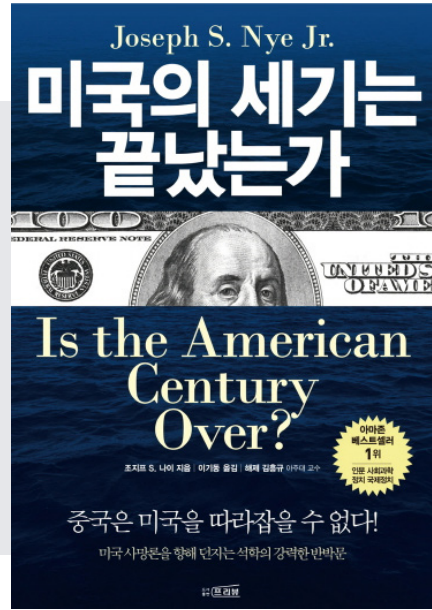
페미니즘이 여전히 필요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성이 겪는 현실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저자는 성별 분업과 여성 노동에 대한 저평가, 성폭력과 성매매 등 여성이 처한 현실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의 현실을 특정 개인과 성별의 탓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가족제도의 모순 속에서 분석합니다. 나아가 여성이 피해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쟁취해야 할 권리를 제안합니다.

- 난이도 ★★(쉬움)
- 흥미 ★★★★★(재밌음)

TIP▶ 이 책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거나 낯설어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쟁점들을 풍부히 담았습니다. 둘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통념들을 페미니즘의 렌즈를 거쳐 낯설게 볼 수 있게끔 서술했습니다. 셋째, 독서 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책을 읽은 사람들이 토론할 수 있는 꼭지도 넣었습니다.

##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저자: 조지프 나이 | 옮긴이: 이기동  
출판사: 프리뷰 | 발행일: 2015.05.31



###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는 끝을 맞이하는 중일까요?

최근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의 상황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라고 얘기하죠.

혹자는 미국은 저무는 태양,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이기 때문에 중국과 더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10년 일본을 제치고 GDP 기준 세계 2위 국가로 올라선 중국은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과시하고 있고, 2020년대에는 미국마저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석좌교수이자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저자는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한국의 이후 행보는 어떠한가요?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는 혼란스러운 대학생들

에게 국제정세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고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난이도 ★★(쉬움)
- 흥미 ★★★★★(현실과 연결되고 재밌음)

TIP📖 한국에서의 여느 이슈 하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는 국제정세에서의 핵심 쟁점인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을 이해하는 데에 기본적인 내용을 제공합니다.

TIP📖 책에서 제시된 미·중 관계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자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비교 기준(경제, 군사력, 소프트파워)과 함께 분석을 제시하고, 이후 전망 또한 제시합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냉전 시기 미국-소련 관계와는 다르고,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라는 점 역시 지적하며 미국의 대중 정책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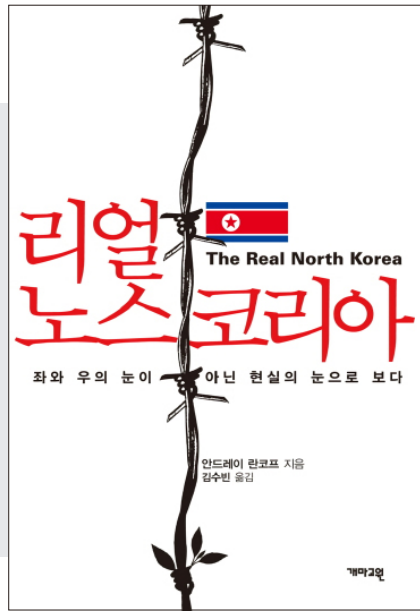


## 리얼 노스코리아

좌와 우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보다

저자: 안드레이 란코프 | 옮긴이 : 김수빈

출판사 : 개마고원 | 발행일 : 2013.09.27




### 여러분은 '북한'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여러분은 '북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같은 민족이지만 비극적으로 분단된 국가', '3대 세습의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핵 문제로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국가'라는 단편들이 곧바로 떠오를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북핵 문제가 남북관계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죠.

다음과 같은 고민이 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감수하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단 이후 70여 년 동안 북한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까?

북한의 역사와 국가 전략의 변화, 그리고 저자가 전망하는 이후 북한의 모습을 담은 『리얼 노스코리아』가 위의 질문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북한 문제에 골머리 앓고 있는 우리에게 제시해줄 것입니다.

- 난이도 ★★(쉬움)
- 흥미 ★★★(보통)

TIP  북한 관련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다만 2013년에 출간된 책이므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개요를 잡는 정도로 활용하는 게 적절할 것입니다. 2013년 이후 북한의 행보 및 국제 정세에서 북핵 문제 현황과 쟁점 등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모두를 위한 노동교과서

노동, 노동자, 노동권을 이해하는 첫걸음

저자: 김철식 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기획)

출판사: 오월의봄 | 발행일: 2021.04.30

### 우리는 모두가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권’은 가장 필수적인 권리 중 하나라고 하죠.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하고,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노동권’이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는다는 안타까운 현실 역시 모두가 알고 있죠.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거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노동권에서 조금씩 배제된 채로 살아야 하므로 청년들은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이 책은 노동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넘어 모든 노동자가 고민할법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대답을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받는 돈이 다를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게 당연한가?”, “파업은 당연한 권리인데 왜 ‘불법’이라고 할까?”와 같은 생생한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노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 난이도 ★(매우 쉬움)
- 흥미 ★★★★★(재밌음)

TIP④ 노동문제를 생생히 설명하면서도 노동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고 경제 구조적 문제임을 같이 설명한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경제구조로 인해서 노동이 유연화, 불안정화된다는 사실도 개괄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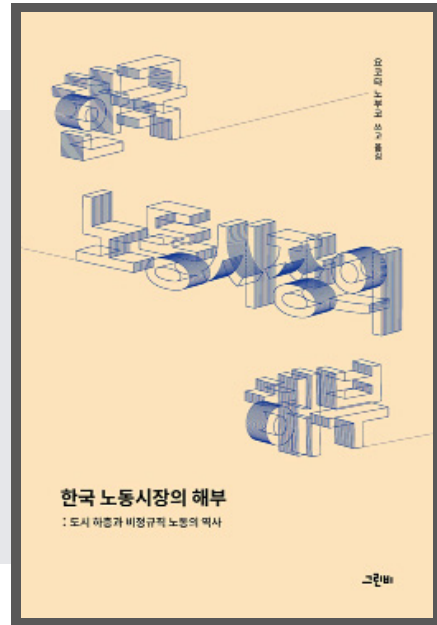
TIP⑤ 실제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에 주목하고 있어서 실천을 지향하는 논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뉴스와 같이 보면서 현실 사례를 보충하면 더욱 생생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한국 노동시장의 해부

도시 하층과 비정규직 노동의 역사

저자: 요코타 노부코

출판사: 그린비 | 발행일: 2020.09.10




**누구나 양극화와 불평등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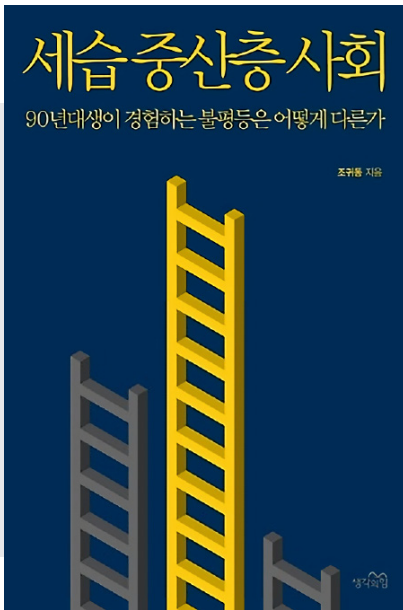
치열한 취업 경쟁에 지친 청년들, 경제 위기에 더 큰 타격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화려한 도시의 그늘 아래에서 열악하게 살아가는 도시 하층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으로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불평등이라는 현상의 역사적 원인을 파헤칩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대기업 남성 노동자로 구성된 '중핵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로 구성된 '주변 노동자'가 확연히 구분된 노동시장이 사회의 핵심 문제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겪는 불평등의 원인을 알고 싶다면, 더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 난이도 ★★★(보통)
- 흥미 ★★★★★(재밌음)

TIP  현상적 묘사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구조적으로 노동시장을 분석하면서 불평등의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분절'을 밝혀내면서도 쉽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기사와 함께 보면서 현실 사례와 연결 짓는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 세습 중산층 사회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

저자: 조귀동

출판사: 생각의힘 | 발행일 : 2020.01.20


### 20대 대선의 주요 후보들이 빼놓지 않고 내건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공약'입니다. 전체 사회가 청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겪는 공통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편, 일각에서는 청년이라고 해도 똑같은 청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별에 따라, 계층에 따라 겪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 문제를 경험할까요?

<세습 중산층 사회>의 저자는 방대한 통계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을 설명합니다. 더는 고도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2020년대, 감정적으로 불평등에 분노하기보다 그 원인을 이성적으로 파고들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 난이도 ★★(쉬움)
- 흥미 ★★★(보통)

TIP  저자는 핵심 문제로 한국 경제의 위기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지목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조건은 무엇인지 답해주지 않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경우 발생하게 된 원인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평등 문제 해결과 관련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한국 경제의 역사와 현재 경제 조건을 말해주는 단행본과 뉴스, <한국 노동시장의 해부>를 참고하길 추천합니다.

## 쿨 잇

회의적 환경주의자의 지구 온난화 충격보고

저자: 비외른 롬보르 | 옮긴이 : 김기응

출판사 : 살림 | 발행일 : 2008.07.18



### 북극곰을 좋아하시나요?

요즘에는 북극곰이 얼음이 없어 위험에 처했다는 광고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북극곰을 구하기 위해 행동하자는 제안과 함께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책의 저자는 기후 위기에 대한 팩트체크를 시도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반대하는 사람이냐고요? 전혀요.

저자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과열되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처럼,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사람들이 급진적인 대책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그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 난이도 ★(매우 쉬움)
- 흥미 ★★★★★(신선하고 재밌음)

TIP📖 이 책은 기후변화 이슈에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인간의 정치·사회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TIP📖 이 책은 과학적 논쟁 역시도 과열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꼭 그렇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과학자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또 이 책은 2100년까지 세계 평균온도가 2.6°C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하는데, 이런 가정만이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접근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겠네요.

영화를 통해서도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를 잘 알면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영화를 통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역사를 풍부하게 이해해봅시다.



## 추천 영화



## 청년 마르크스 라울 펍 감독

여러분들은 ‘마르크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탁수염? 무서운 아저씨? 이 영화는 1843년 마르크스가 당시 프로이센 정부의 라인 신문 폐간 조치로 거처를 파리로 옮긴 때부터, 1848년 엥겔스와 함께 <공산주의 선언>을 집필하기까지의 약 5년을 담고 있습니다. 감독이 그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저 불우한 시대적 배경에 분노한 휴머니스트가 아니라, 시대의 모순을 간파하고 그것을 바꾸어내고자 한 실천적 지식인이예요. 철저한 고증 끝에 만들어진 영화다 보니 대사 한 마디 한 마디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영화에는 마르크스의 부인 예니와 엥겔스의 연인 메리가 마르크스, 엥겔스와 동등한 활동가로 등장하는, 페미니즘적 영화기도 하답니다.

마르크스의 200번째 생일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이 영화는 최초로 마르크스의 생애를 다룬 작품이에요. 언젠가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다룬 영화도 만나볼 수 있길!



## 돈 룩 업 아담 맥케이 감독

여러분은 과학적 사실을 믿나요? 누군가 과학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조작한다고 했을 때 이에 속지 않을 자신이 얼마나 있나요? 영화 Don't look up은 현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사실’이 존재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재앙이 닥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지식인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진실을 은폐 혹은 조작해 대중을 선동에 빠트린다고 경고하지요.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만연한 반지성주의와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영화 속 과학적 사실은 ‘인류를 멸망에 빠트릴 행성이 지구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지만, 이는 비유적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주목해야 할 진실과 지식은 무엇인지, 또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용되는지, 결과적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면서 감상하길 추천합니다.





## 또 하나의 약속 김태윤 감독



여러분은 한국 반도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 수출의 주력 상품? 명실상부 한국 경제성장의 1등 공신인 반도체가 2021년 1~11월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언뜻 보면 한국의 반도체 신화는 찬란한 빛만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반도체 신화의 어두운 뒤편에는 반도체 제조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 등이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던 회사는 노동자의 질병을 '개인적인 사유'로 치부하고 책임을 회피하죠. 영화는 황유미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빛나는 반도체 신화, 그리고 그 이면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사회의 산업재해와 노동 안전 문제에 대한 고민, 학회에서 '또 하나의 약속'을 시청하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 미안해요, 리키 켄 로치 감독



요즘은 무엇이든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빠르게 배달해 주는 택배가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물건, 가격, 배송비, 도착 시간에 관심과 기쁨이 쏟아지는 와중에 고된 노동을 통해 그 기쁨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미안해요, 리키'는 택배 노동자인 '리키'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리키는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매니저 '멀로니'로부터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지만 멀로니는 택배기사를 자영업자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쉴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몸이 망가지고 이로 인해 가족들과도 불화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듯 영화는 실제 택배 노동자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택배 속에 숨어있는 노동자의 삶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며 영화를 감상하길 추천합니다.

## 빅 쇼트 아담 맥케이 감독

‘2007~2008년 금융위기’를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던 경제 위기이며, 그 위기 이후 미국은 경제적 파급력이 옛날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건으로 거론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인 만큼, 공부하고는 싶은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CDS, CDO, ABS... 이게 다 무슨 말이람? 공부하기도 전에 덜컥 겁부터 나지 않나요?

그런 대학생을 위한 한 줄기 빛과 같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당시 금융위기 사건을 재구성해서 위기가 발생한 맥락을 생생히 짚고, 당시 사용되었던 복잡한 파생금융상품들을 쉽게 설명해줍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더 이상 ‘2007~2008년 금융위기’가 등장하는 경제 텍스트에 겁먹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도 기를 수 있습니다.



## 국가부도의 날 최국희 감독

'IMF'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금 모으기 운동? 구조조정? 막연하게 'IMF 당시에 아주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잘 접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가부도의 날》은 1997년의 금융위기가 개발연대부터 누적되어온 한국 경제시스템 자체의 문제임을 잘 설명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잘 나가던 한국 경제가 갑자기 무너졌을 때,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영화에서는 건조한 텍스트를 넘어 인물들의 선택과 고민을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비정규직, 영세한 자영업 등 한국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은 IMF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코로나 19 경제 위기의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학회에서 《국가부도의 날》을 함께 보며 그 고민을 이어나가 봅시다.



전쟁은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인류가 이제껏 이룩한 문명 전반까지 파괴하는 인류사의 비극입니다. 세계적으로 20C 초 양차 세계대전이 그랬고, 우리 역시 한국전쟁의 비극을 겪었죠.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 역시 전쟁은 단순히 ‘지나간 옛날이야기’,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타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고, 세계 차원의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으로 인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위협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전쟁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까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이라는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두 영화를 함께 시청하며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시작해보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 원헨 : 전쟁의 문턱에서 크리스찬 슈비초브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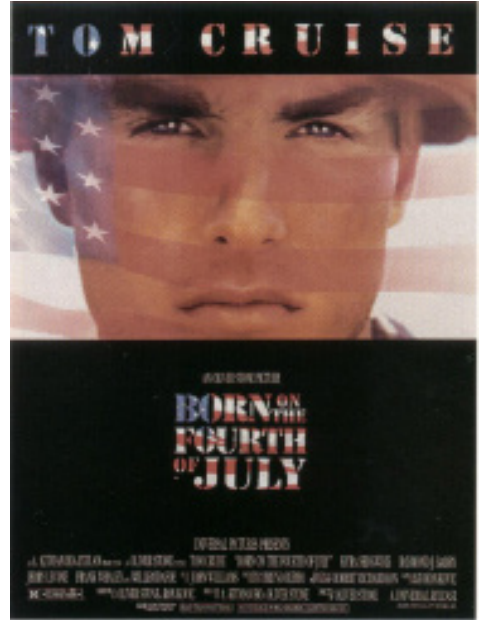
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1938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준비하면서 유럽은 다시 한번 전쟁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는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원헨에서 회담을 합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독일 팽창의 야욕을 숨기고 있었고, 원헨 협정은 오히려 나치 독일이 전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는 상황이었죠.

영화는 한때 옥스퍼드에서 같이 공부하며 친구로 지냈던 영국인과 독일인 외교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원헨 협정이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한 이들은 다가오는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지식인으로서 고뇌하고 발버둥 치며 전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펼칩니다. 영화는 전쟁 이전까지의 상황만을 다루지만, 전운이 감도는 숨 막히는 긴장감과 그 속에서 분투하는 지식인들의 다양한 군상들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마음 한편에 울림을 남깁니다. 2022년에도 전쟁의 위협에서 결코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우리들, ‘원헨: 전쟁의 문턱에서’를 보며 대학생이자 지식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사고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길!

## 7월 4일생 올리버 스톤 감독

‘7월 4일생’은 전직 미 해병대 병장 론 코빅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주인공 론의 생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과도 같은 7월 4일입니다. 론은 자원입대하여 베트남전에 투입됐고, 정신적 트라우마와 하반신 마비라는 끔찍한 상처만 안은 채 귀국하게 되죠. 하지만 귀국한 론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트남전 반대 시위와 닉슨 행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로 술렁거리는 사회 분위기, 살인자라고 손가락질받는 찬밥 신세 속에서 론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습니다.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론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바쳤던 전쟁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지난 인생을 모두 부정하고 반전 활동가가 될 것인지 사이에서 말이죠.

여러분이 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반전 영화이자 한 반전 활동가의 성장기이기도 한 영화 ‘7월 4일생’, 2022년에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조조 래빗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은 그 당시에 선망받는 직업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나치 시절, 소년과 소녀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인공 조조의 꿈은 ‘멋있는 히틀러의 절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살이 된 조조는 ‘철없던 9살’의 모습을 버리고, 매일 전쟁과 정치를 생각하며 그 꿈을 키워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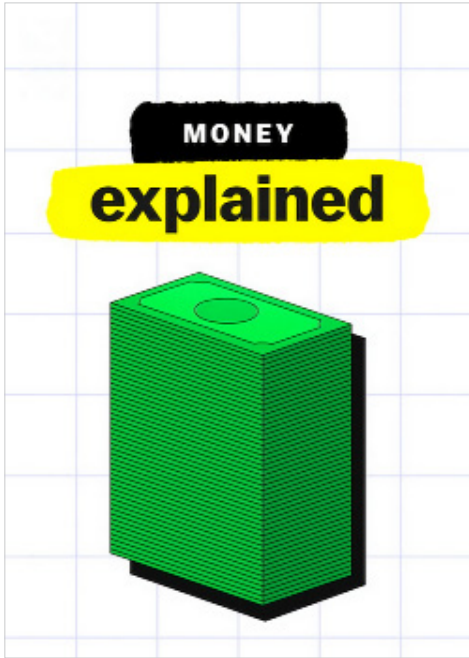
천진난만했던 조조를 바꾼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화는 나치 시절, 나치를 키워내는 사회 시스템과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독일 소년단은 소년, 소녀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고 유대인의 실체라며 거짓된 내용을 주입하지요. 나치에 반대하고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무참히 살해해 시신을 전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는 운명처럼 한 유대인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응당 나치가 무찔러야 하는 존재인 유대인을 만난 조조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영화를 통해 그 모습을 확인해보세요.



## 넷플릭스 익스플레인 돈을 해설하다

#경제 #금융 #사기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도박 #노후 #은퇴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코인에 한 번쯤은 손대봤을 거예요. 최근에 암호화폐 붐이 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투자에 뛰어들었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빚투(빚내서 투자하다)” 같은 말도 나오고요. 그런데 누구나 벼락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NO!” 입니다. 심지어는 그동안 투자했던 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알면서도’ 여기에 빠지는 걸까요?

한편, 코인과 관련해 금융 사기 논란도 커지고 있어요. 이 영상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다섯 가지 사기 유형을 설명해줘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도 소개해줘요! 우리 같은 대학생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학생 때 받은 대출은 우리가 졸업한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졸업하고 나서 ‘신용카드’를 만들었는데 덮어놓고 굶다 보니 빚 감당이 안 된다면? 연체된 신용카드 빚에 허덕이다가 ‘도박’이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30년 후에 ‘은퇴’하고 노후 좀 편하게 보내고 싶은데 은퇴자금이 부족하다면?

위 질문들은 ‘돈’ 하나로 웃기도, 울기도 하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는 것이예요.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고민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도, 혹은 다큐멘터리 속에서 고민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 넷플릭스 익스플레인 코로나바이러스를 해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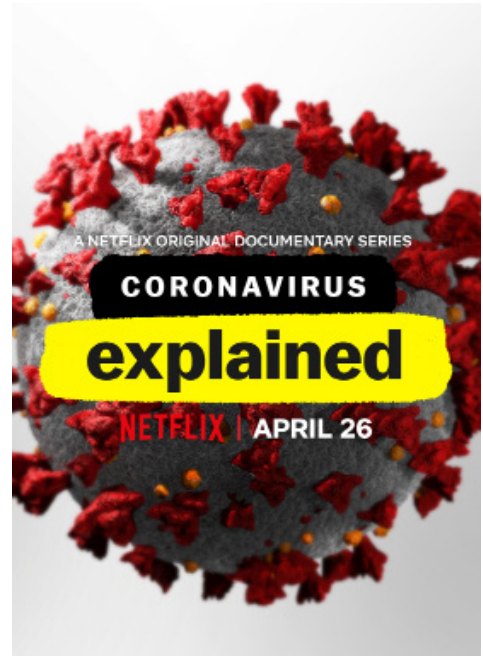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 #바이러스 #백신 #메디컬

2020년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코로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인간의 모든 영역에 침투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평소 밖에 잘 나가지 않던 분들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체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와 동아리 활동은 어떤가요? 비대면 수업으로 컴퓨터 창에 갇혀 떠들어대도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테고, 동아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이 들지도 몰라요.

과연 이 바이러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우리의 삶과 사회를 단 몇 개월 만에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약이 개발됐다고는 하는데...우리는 언제쯤 접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 사소하지만 즐거웠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영상 속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해 우리가 궁금할법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설명해줘요. 또한 팬데믹 시대에도 정신적·사회적으로 격리되지 않을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요. 바이러스에 맞선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될 상흔들.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정신건강 문제의 진단까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낼 방법을 모색해보아요!



## 넷플릭스 익스플레인 투표를 해설하다

#정치 #선거 #투표 #민주주의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열렸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하죠. 한국에서는 일정 연령에 다다른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정치에 비판적인 시민들은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전제에 ‘진짜 이 말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일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정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격렬히 벌어지고 있는 참정권 논쟁을 두고, 균열을 내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태동한 미국에서,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걸까요? 영상은 참정권에 있어 차별과 유권자 탄압, 게리맨더링, 선거인단의 구성과 투표권법의 문제 등을 소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민주주의의 ‘권리’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이미 한물 간 사상이 아니냐고  
요? 여기서 소개한 책들을 꼼꼼히 읽어본다면, 아  
직도 우리가 마르크스의 사상으로부터 배울 점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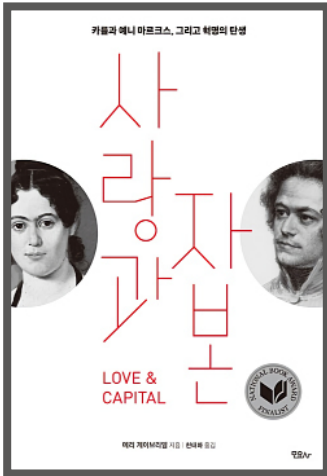
추천도서

마르크스처럼  
생각하기

## 😊 마르크스는 누구인가

마르크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마르크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봅시다.

마르크스는 철학박사로 자신의 지적 여정을 시작했지만,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거대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마르크스의 위대한 저작 ‘자본: 경제학 비판’입니다. 우선 마르크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켰는지 살펴볼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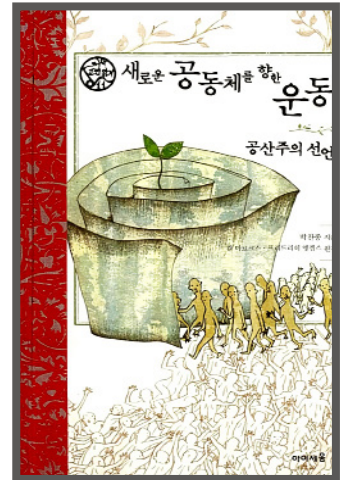
**사랑과 자본** 카를과 예니 마르크스, 그리고 혁명의 탄생

저자: 메리 케이브리얼  
옮긴이: 천태화  
출판사: 모요사

마르크스 하면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한 편에서는 자본주의를 뛰어넘을 기획을 제시한 ‘공산주의의 성자’, 다른 한 편에서는 체제의 전복을 꾀하는 ‘머리에 불 달린 악마’. ‘사랑과 자본’은 이러한 관점들은 잠시 제쳐놓고, 마르크스의

삶을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복원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동시에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역시 함께 조명하며 마르크스의 삶과 사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돕습니다.

책에서 마르크스와 그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 제시하는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마르크스와 예니의 동지적 사랑, 위대한 사상가인 아버지를 존경했던 세 딸들의 사랑, 그리고 마르크스와 그 가족의 혁명에 대한 사랑. 부와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자식마저 잃게 되는 가난한 삶, 혁명에 인생을 바치며 지식인으로서 고뇌하는 삶을 감내하면서도 혁명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마르크스 가족의 혁명에 대한 사랑과 서로 간의 동지애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죠. 자본주의의 위기를 맞이하여 마르크스라는 인물을 다시 한 번 소환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의 이론과 함께 삶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운동** 공산주의 선언

저자: 박찬종  
출판사: 미래엔아이세움

‘자본’만큼 유명한 마르크스의 저작이 바로 ‘공산주의자 선언’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활동하던 1800년대는 부르주아 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정치·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착취받는 노동자들이 존재했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에서 자본가



와 노동자는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저자는 단순히 '공산주의자 선언'만을 해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작 탄생의 기반이 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 당대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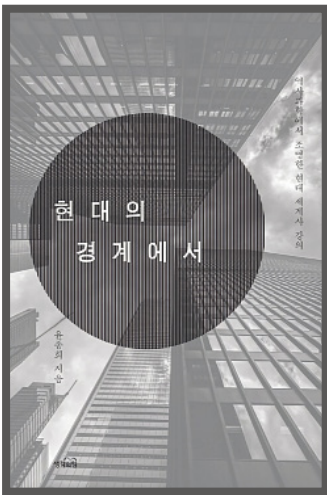
을 다루며 한 층 더 풍부한 이해를 돕습니다. 나아가 '공산주의자 선언' 이후, 그리고 현재에도 공산주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된다고 주장하죠.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꿈꿨던 마르크

스와 엥겔스의 구상은 무엇이었을까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본주의가 다시 한 번 위기에 빠진 지금, '공산주의자 선언'을 읽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시작해봅시다.

## 마르크스처럼 생각하기

마르크스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은 '자본'이지만, 분량부터 어마어마하다보니 선뜻 도전할 엄두가 안 나네요. 읽어도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생각에 접근할 수 있는 책읽기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마르크스가 평생을 걸쳐 연구한 걸 집약한 것이니 한 번 읽고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보면, '아, 이거구나!' 싶은 때가 올 거예요. 인류의 위대한 성취, 마르크스의 '자본'이 주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현대의 경계에서** 역사과학에서 조명한 현대 세계사 강의

저자: 윤종희  
출판사: 생각의힘

우리는 경제학 비판이 역사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 생명과학, 사회과학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역사과학이라는 말은 처음이라고요? 역사과학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바로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라고 하면 우리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같은 날 중국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서 역대 최대의 무력 시위를 벌였다.'와 같은 정치적 사건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정치적 사건 배후의 메커니즘을 분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떤 시대에는 훌륭한 사람들만 태어나서 태평성대가 되고, 어떤 시대에는

전쟁광들만 태어나서 세계가 전쟁에 휩쓸리는 건 아닐테니, 그런 우연한 사건들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와 메커니즘을 파악해보자는 겁니다.

이 책은 현재 우리가 '현대'가 끝나는 시점에 와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를 넘어서는 것이 가능할지, 아니면 오히려 '현대'에서 퇴행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책을 따라 '현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구조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본다면, 어떻게 '현대'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알듯 말듯 하다고요? 네, 아마 책을 다 읽고 나서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다. 쉬워 보여

도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2번, 3번 반복해서 읽어보길 권합니다. 혼자 읽어도 좋지만, 친구들과, 선배들과, 후배들과 함께 읽으며 이야기를 나눠봐도



## ‘자본’의 이해 마르크스의 경제이론

저자: 던컨 K. 폴리  
 옮긴이: 강경덕  
 출판사: 유비온 2015.04.01

세상에서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만큼이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이론은 없을 겁니다.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로 인해 그의 사상은 이미 끝나버렸다고 예단해버리거나, 마찬가지로 현실 사회주의의 악몽으로부터 그의 이론에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자는 마르크스 경제사상의 전반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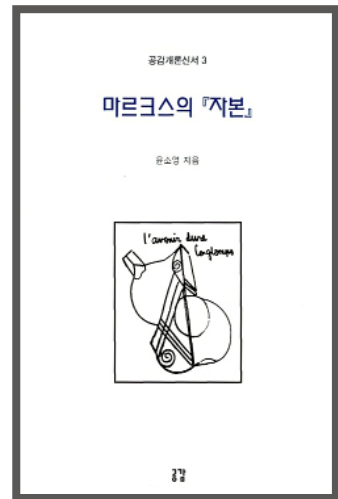
안내서로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은 10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장은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 기초를 제시합니다. 가장 독특한 것은 자본주의 경제구조에 관한 여러 규정을 그저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의 층위를 구분하자는 제안인데요, 바로 이 철학적 기초 위에서 2장부터 9장까지 그는 마르크스의 분석을 겹겹이 쌓아나갑니다. 이렇게 겹겹이 쌓아올린 규정들이 하나의 총체적인 체계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의 자본주의 경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은 너무 어려우니, 지옥을 경험할 것 같다면 일단 넘기고 다음에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장은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의 결론으로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진지하게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의미를 탐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이 제격입니다.

## 마르크스의 자본

저자: 윤소영  
 출판사: 공감

마르크스는 고전파 경제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고전파 경제학자와는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이론을 제시하는데요, 그 핵심은 화폐와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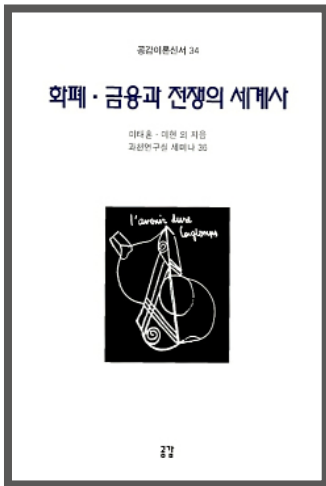


부는 거대한 상품의 집적으로 나타난다’는 마르크스의 말처럼,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화폐와 노동력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상품이면서, 순수하게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이 책에서 화폐에 대한 분석과 노동력에 대한 분석은 각각 가치법칙과 잉여가치법칙으로 요약됩니다. 이 정의법칙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고유한 운동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지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고유한 운동의 법칙을 이해해야 그에 반작용하는 인간의 노력, 나아가 그것을 넘어서려는 노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내용을 완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자본’에 관한 100년의 논쟁을 종합하고 있는 이 책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의 두

권을 꼼꼼히, 열심히 독서한 사람이라면 이 책의 간결한 요약이 흥미롭게 느껴질 것 같네요. 특히 이 책에서 제시한 화폐의 기능에 관한 분석은 2007-09년 금융위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니, 꼼꼼히 읽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화폐·금융과 전쟁의 세계사

저자: 이태훈, 이현  
출판사: 공감

특수한 상품으로서 화폐는 시장 경제의 발전과 함께 역사적으로 진화해왔습니다. 국가가 본위 화폐를 확립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화폐가 등장했고, 화폐는 금융과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는 스스로 가치를 증식하는 화폐, 즉 자본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이 화

폐, 금융제도의 역사를 분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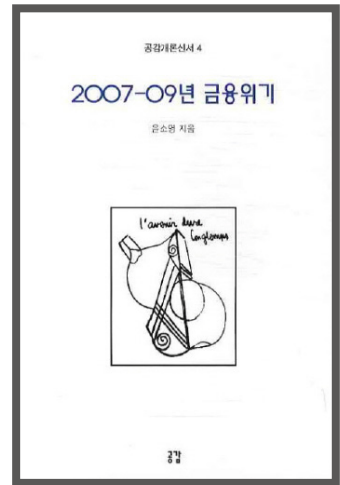
그런데 현재의 화폐, 금융시스템은 순수하게 경제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국제결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달러'는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금과 태환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달러가 세계 화폐로 사용되는 배경에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전쟁의 역사를 검토합니다.

금융세계화와 평행하는 군사세계화에 관한 분석은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국제분쟁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쉬운 책은 아니지만, 마르크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오늘의 경제, 사회현실을 분석에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 2007-09년 금융위기

저자: 윤소영  
출판사: 공감

정세(conjuncture)란 경기순환의 한 국면을 가리키는 경제학의 전문용어입니다. 알튀세르라는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는 경제 정세에 정치 정세 또는 이데올로기 정세를 추가합니다. 이처럼 마르크스주의자라면 자본주의의 위기와 그것을 지양하려는 공산주의적 운동을 분석하



지요.

이 책은 혁명적 정세라는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대안세계화 운동의 전개양상을 분석합니다. 장기적 이윤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실물경제가 침체에 들어선 데다가, 서브프라임 위기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와 결합하여 대불황으로 이어지기 직전의 상황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양하는 운동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2007-09년 금융위기가 곧바로 자본주의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실물경제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10년 가까이 걸렸다는 점에서 대불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은행위기나 증시붕괴, 재정위기나 달러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운이 아니었습니다. 2007-09년의 금융위기를 극복한 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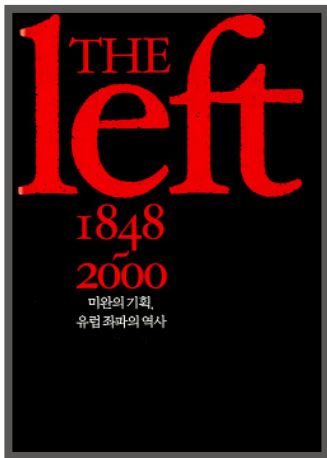
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경제 협력과 군사협력을 강화한 부르주아 경제학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습니다.

책이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한 운동은, 부르주아 경

제학의 대응에 비하자면 아직 미약한 듯 합니다. 책을 읽으며 마르크스적 대안에 대해 함께 토론해보면 좋겠습니다.

## 마르크스를 따른 사람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마르크스의 사상에 크게 감명을 받아, 세상을 바꾸려 했던 시도들이 있습니다.



### The Left 1848~2000 미완의 기획, 유럽 좌파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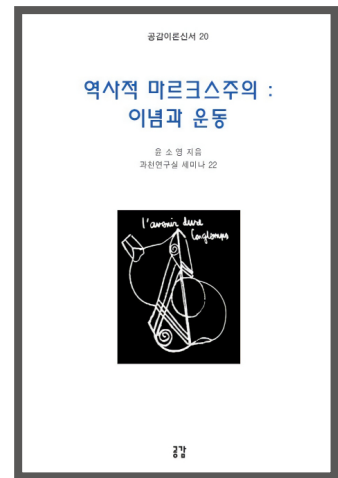
저자: 제프 일리  
옮긴이 : 유강은  
출판사 : 뿌리와이파리

2022년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0부터 고민을 시작할 필요는 없죠. 지나간 역사 속, 현

재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좌파들의 시도와 그에 대한 평가가 이미 존재하니까요. 마르크스주의 운동사를 통해 역사 속 좌파들은 현재와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학습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나은 방향성을 갖고 문제를 마주해나갈 수 있습니다.

'The left'는 1848년부터 2000년까지 약 150여년 기간 동안의 유럽 좌파의 역사를 다룹니다. 저자는 좌파 세력의 형성과 몰락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 역사 속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다양한 쟁점들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마르크스주의의 탄생, 혁명과 좌파의 부상, 소련 사회주의, 전쟁, 민주주의, 파시즘과의 투쟁, 스탈린주의, 신좌파의 등장 등. 2022년이라는 좌표 속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사고와 운동을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The left'는 좌파가 지나온 길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을 알

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이념과 운동

저자: 윤소영  
출판사 : 공감

한국에서 마르크스주의는 1980년대에 화려하게 부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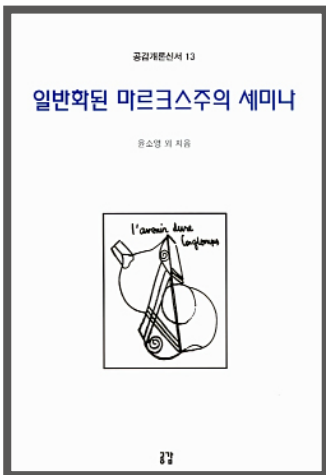
하지만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1990년대부터 뚜렷한 하향세를 보였죠. 비록 역사에서 실패했지만, 마르크스주의 그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역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거든요.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련 및 현실 사회주의 실험의 의의, 그리고 한계는 무엇일까?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모색할 수 있는 미래는 무엇일까? 모든 운동

은 대부분 선하고 좋은 의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선하고 좋은 의도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일관된 방향성에 따른 과학적인 실험과 평가, 그리고 조정의 과정이 있어야 진보가 이뤄질 수 있겠죠. 그렇기에 운동의 중심이 되고 방향을 제시하는 이념이 중요합니다. 이념이 있어야 운동의 방향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방향이 있어야 운동을 일관적인 기획 속에서 실험하며 이후 진전을 위한 평가 또한 남길 수 있겠

죠. 책은 소련 및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마르크스주의에 적합한 정치이념 또는 사회운동으로 '평의회 마르크스주의'를 제시합니다. 평의회는 다른 말로는 코뮌, 그리고 소비에트를 의미하죠. 평의회 마르크스주의는 당 중심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함께 노동자·민중의 정치·경제 부분의 통제를 지향합니다. 마르크스주의의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평의회 마르크스주의, 궁금하시다면 책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 마르크스주의 확장하기

'경제학 비판'만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주의와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시각들이 필요합니다. 마르크스주의를 확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함께 생각해봅시다.



###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세미나

저자: 윤소영, 박상현, 송인주, 이태훈, 공민석, 안종석  
출판사: 공감

마르크스 자신의 마르크스주의를 심화하고 확장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의 일반화'라고 합니다. 경제학 비판을 발전시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와 그 변화를 분석하려는 시도, 또 마르크스의 분석에 따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방향성을 성격 차이, 지식에 대한 권리, 생태, 보건의료의 영역으로

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를 포함하지요.

이 책은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를 설명하는 일종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세계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계여행을 한 것은 아니듯, 이 지도를 본다고 해서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를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지도 없이 세계를 여행하는 건 위험하니까, 이 지도가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라는 거대한 영역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

저자: 존 벨라미 포스터  
 옮긴이: 김현구  
 출판사: 현실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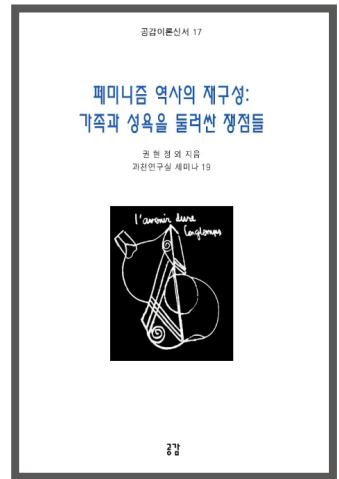
생태는 최근 한국 사회, 아니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제로웨이스트,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등 매우 다양한 주제가 생태문제의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역시도 매우 다양합니다. 생태친화적 기술발전론, 탈성장론, 균형발전론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생태 문제에 대한 접근도 있습니다. 저자 존 벨라미 포스터는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에서 환경문제와 사회문제를 연관시킵니다.

저자는 오늘날 지구 생태문제를 해결하려는 처방들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앞날을 염려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환경행동이 고작해야 재활용과 녹색쇼핑 같은 개인적인 실천, 혹은 이미 환경에 해를 끼쳐온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호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사회문제와 환경문제의 상호연관성을 사고해야 하고, 이에 기초해야만 변화를 위한 강력한 운동이 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요.

그렇다면 둘을 어떻게 연관시켜야 할까요? 저자는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주의를 꺼내드립니다. 마르크스가 지적한 노동의 자본에 대한 종속처럼 자연의 자본에 대한 종속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나아가 저자는 산업혁명 이전부터의 자본주의 역사를 근거로 자본주의가 환경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분석합니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경제사와 생태의 두 관점에서 모두 환경주의자들이 “지속가능한 (생태와) (경제)발전”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본주의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환경적 필요를 더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사회로 대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요.

물론 이런 사회는 아직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환경을 보호하는 데 왜 실패했는지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대답에 한 발짝 다가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가족과 성욕을 둘러싼 쟁점들

저자: 이미경, 권현정, 김숙경, 오현미, 정인경  
 출판사: 공감

페미니즘에도 역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각기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사회적 현실로부터 출발한 페미니즘들 각각이 지향하는 세상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페미니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어떤 시도를 했는지, 그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들로부터 오늘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도 있겠지요.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페미니즘은 어떤 페미니즘인가에 주목해서 살펴보면 좋겠네요.